

# ‘호남 기반’ 대안신당 공식 출범

### 중앙당 창당대회...“싸움판 혁파·변화 정치 주도” 당대표에 최경환...현역의원 8명으로 ‘원내 5당’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안신당이 12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대안신당은 소속 현역의원이 모두 8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에 이어 원내 5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대안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창당대회를 가진 뒤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기득권 정치, 싸움판 정치를 혁파하고 변화와 희망의 정치를 주도할 대안신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초기 개혁연대를 거부해 정치개혁, 국가개혁의 소중한 기회를 놓쳐 버린 집권여당과 무조건적인 박포잡기로 국민적 지탄으로 전락한 제1야당의 책임을 묻고, 그들이 망쳐놓은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며 “강력한 정치적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한국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로는 최경환 의원이 추대됐다. 최 의원은 수락연설을 통해 “조선인저를 추대하는 것은 대안신당부터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문을 활짝 열어야, 진정한 제3세력을 다시 만들어야,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진보개혁 정권의 재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이라며 “이 순간부터 대안신당은 제3세력 통합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진보개혁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제3세력, 중도개혁 진

영,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향해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제3세력 통합 추진을 위한 원탁회의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안신당은 유성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타당의원과 대화에 나선 후, 논의 진행 경과를 보고 본격적인 원탁회의의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명은 “당원의 애정이 녹아있고, 국민

도 많이 알고 있다”며 가칭으로 사용해온 대안신당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겸 수석대변인에는 장정숙의원, 사무총장은 김중희 의원, 정책위의장은 윤영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창당대회에서는 정강정책과 당헌도의 결됐다.

창당준비위원회 정강정책기초위원장을 맡은 윤영일 의원은 “정강정책에 특권·위선·기득권 정치 배격, 선민과 약자 위한 정치, 농어민·자영업자·중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치, 청년·노인·여성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당헌에는 창당 직후 통합과 합당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회 구성원과 당 소속 국회의원을 합당 권한을 행사할 수임기관으로 지정하는 특례조항

을 두기로 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박지원, 유성엽, 천정배, 장병완 의원 등을 비롯해 500여명의 당원이 행사장을 가득 매웠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화환을 보냈다.

최와대강기정 정무수석과 김광진 정무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 등 여야 인사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 축하의 뜻을 전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았다. 대안신당 지도부는 13일 오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서울=강병운 기자



당기 흔드는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신임 최경환 당대표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18세 유권자 공략...당내당 ‘전국청년당’ 설치

### 선거 새내기 대상 교육·투표독려 모바일 캠페인도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새롭게 한 표를 행사할 만 18세 유권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당 조직을 개편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캠페인을 실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앞으로 ‘전국청년당’으로 불린다. 오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청년당 전진대회’를 열어 이 같은 명칭 변경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총선을 앞두고 ‘위원회’를 ‘당’으로

승격하는 것으로, 청년위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청년은 물론 청소년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한다.

청년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년위가 ‘당의 당’으로서 독립성과 자치성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청년 문제를 보다 강력하게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청년당 산하에는 만 16~18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새로운 총선 변수인 청

소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분과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교내 민주주의 등 청소년 의제들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청년위 관계자는 “청소년분과위 위원모집을 시작한 상태”라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스스로 해결책을 기획, 해결해 나가는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위는 만 18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 및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선관위, 위성정당 허용여부 결정 오늘 전체위원회서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정기 브리핑

### 장병완 ‘발전소 주변지역 일부개정안’ 통과

대안신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지난 9일 해상풍력발전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설치로 어업 구역 축소, 선박 통항 불편 등 주변지역 어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제주, 전북,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어민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이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잔밥 신세’로 전락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발전소 주변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상풍력에 대한 지역수용성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진통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이재호 “부동산 소유권 특별법으로 재산권 보호”

더불어민주당 이재호(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9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은 지난 1978년부터 세 차례(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 의원은 “과거 부동산등기 특별법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해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농어촌 주민이 적지 않았으나 제대로 된 구제가 이뤄지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면서 “대표발의 3년여 만에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리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 황주홍 대표발의 제정안·개정안 24개 본회의 통과

민주평화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24개(제정안 3개, 개정안 21개)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중 제정안은 3건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간 소유권 보존



중기가 돼 있지 아니 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도록 하는 법률로, 농어촌 최대 속원 사항중 하나로 농어민 재산권 행사와 농어촌 발전에 밀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송갑석 “광주형일자리법으로 정부 재정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형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형일자리법은 광주형일자리비롯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위해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 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함께,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공



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사위에서 수정의결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광주형일자리법은 노사상생형 지역일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 활로가 열렸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용도** ...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일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080-362-7788**  
**www.dreamkorea.biz**